

충남사회서비스원
충남 청년여성의 일자리 특성과 지역 정주

임우연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청년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



*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충남 청년여성 임금 수준은 청년남성 임금의 77% 수준으로 전국 81% 보다 낮았음. 충남의 전체 평균임금 역시 전국 대비 낮은 편으로 전체 여성임금은 남성 임금의 59% 수준으로 전국 61%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전국 및 충남 청년의 평균임금 성별 비교 (단위: 만원)

구분	전체			구분	청년		
	남	여	상대적 수준*		남	여	상대적 수준
전 국	353.4	216.9	0.61	전 국	324.1	261.3	0.81
충 남	347.4	205.5	0.59	충 남	318.9	245.4	0.77
충남임금 수준*	0.98	0.95		충남임금 수준	0.98	0.94	

* 전국(남녀)임금을 1로 했을 때 충남(남녀)임금의 상대적 수준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충청남도
청년 고비중
산업군 및 직업군의
성별 차이



※ 충청남도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남성의 경우 평균임금 (318.9만원)보다 높은 산업군의 비중이 높으며, 청년여성의 경우 평균임금(245.4만원)보다 낮은 산업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충남 청년 고비중 산업군 성별 비교 (단위: 만원)							
충남 청년남성				충남 청년여성			
산업명	평균임금	N	비중	산업명	평균임금	N	비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4.0	114	8.9	교육 서비스업	245.2	137	14.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5.4	108	8.4	보건업	264.2	122	12.7
교육 서비스업	271.7	75	5.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72.4	104	10.8
전문직별 공사업	325.7	66	5.2	음식점 및 주점업	152.9	88	9.1
음식점 및 주점업	179.1	56	4.4	사회복지 서비스업	230.2	85	8.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7.8	54	4.2	소매업; 자동차 제외	175.2	54	5.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19.0	51	4.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87.5	43	4.5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83.3	48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0.0	22	2.3
사업 지원 서비스업	272.7	47	3.7	사업 지원 서비스업	220.2	21	2.2
식료품 제조업	299.7	46	3.6	식료품 제조업	257.9	19	2.0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 충청남도 청년여성의 경우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업군이 7.3%,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업군이 5.2%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지만 평균임금은 가장 낮게 나타남. 즉 청년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직업군에 고용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충남 청년여성의 경우 음식점 및 주점업 고용 비중이 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평균 임금은 152.9만원으로 가장 낮은 산업군임. 남성은 동일산업에 대해 4.4%의 비중을 차지 하지만 평균임금은 여성대비 높게 나타남.

충남 청년 고비중 직업군 성별 비교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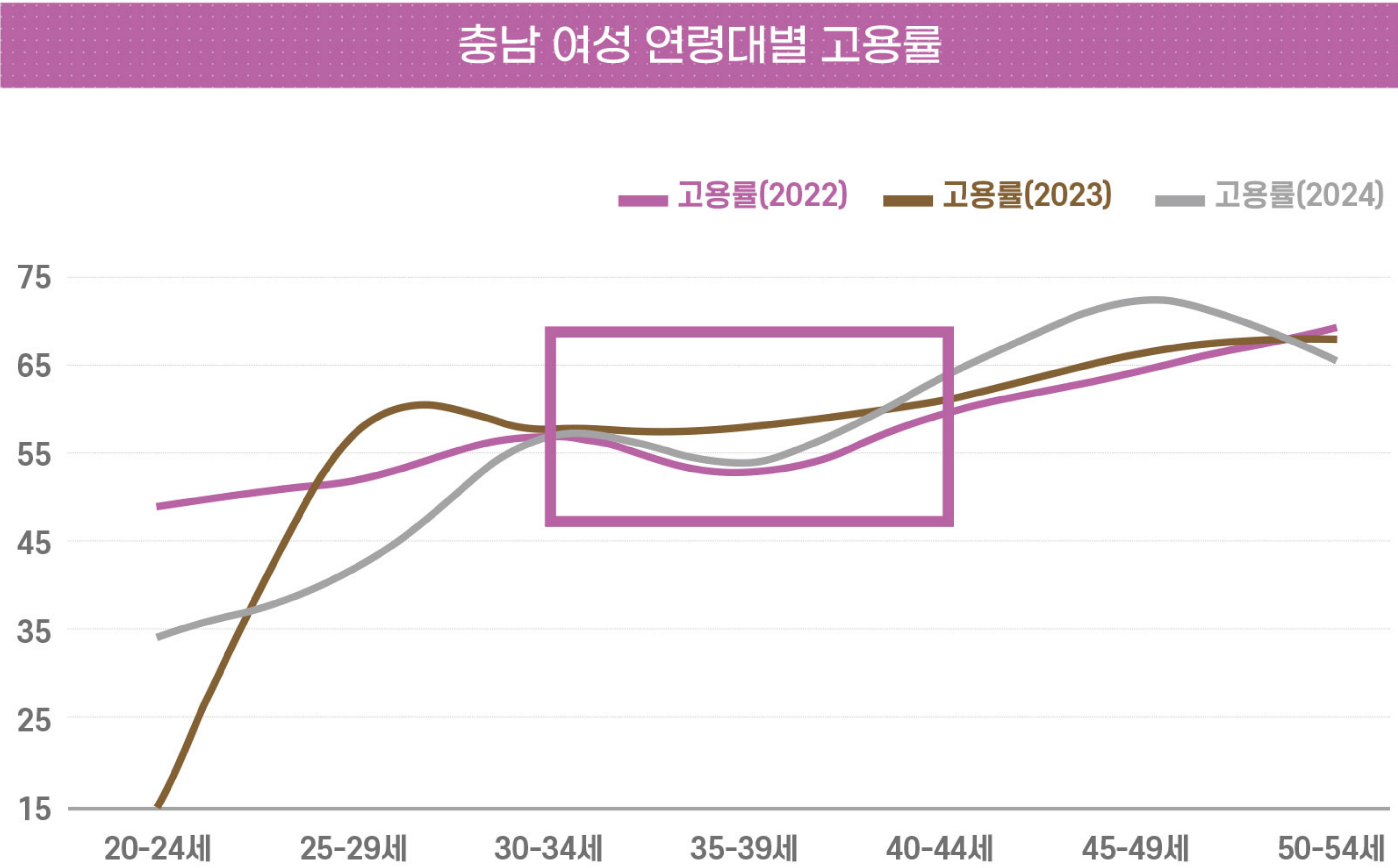
충남 청년남성				충남 청년여성			
직종명	평균임금	N	비중	직종명	평균임금	N	비중
자재·생산 및 운송 사무직	369.4	98	7.7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271.1	121	12.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388.8	84	6.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8.1	86	8.9
기계 제조·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345.7	83	6.5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279	83	8.6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366.4	81	6.3	회계·경리 및 통계 사무직	246.9	73	7.6
법률·감사 및 정부 행정 사무직	294.2	67	5.2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56.2	70	7.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363.2	55	4.3	사회복지·종교 전문가 및 관련직	242.5	66	6.9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368.1	47	3.7	일반 지원 사무직	241.7	65	6.8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84.9	45	3.5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52.4	50	5.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311	43	3.4	전기·전자 관련 기계 조작 및 조립직	362.9	36	3.7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 조작직	330.1	43	3.4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209.8	29	3.0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분석

충청남도
청년여성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 최근 우리사회의 30~40세 여성 고용률이 과거 대비 상승하여 경력단절이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지만, 여전히 충남의 30-40세 여성 고용률에는 결혼, 출산, 양육으로 M자형 곡선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부가조사) 원자료분석/ 경력단절여성현황(시도/연령·교육정도별)/성인지통계시스템

※ ‘24년 충청남도 여성 고용률은 54.9%로 17개 시도 중 11번째 위치하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는 더 낮은 상대 순위를 나타냄(17개 시도 중 15위). 타 시도 대비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됨. 이는 청년여성의 충남 지역 정주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임.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생존 전략



※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에 대하여 ‘육아 및 가사 부담’이라고 응답한 충청남도 청년 비율이 13.2%로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과거(이전)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								(단위: %)
구분		학업을 계속 하려고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 일이 맞지 않아서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기술 및 기능이 부족해서	동료 또는 상관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보수, 승진 등에 불만이 있어서	근무 조건 또는 작업 환경이 나빠서
전체		7.3	1.7	17.2	1.3	4.4	9.2	16.5
성별	남성	9.1	1.6	18.9	2.2	3.9	10.6	16.9
	여성	5.7	1.8	15.6	0.5	4.9	7.8	16.2
연령	19~24세	22.1	2.3	16.1	1.5*	4.8	5.1	13.4
	25~29세	5.4	1.8	20.2	1.6	4.8	9.8	16.5
	30~34세	3.5	1.4	15.0	1.0	4.0	10.1	17.7
지역 1	수도권	7.4	2.0	17.5	1.4	4.2	10.3	16.1
	비수도권	7.3	1.4	16.8	1.3	4.7	7.7	17.0
지역 2	서울	7.5	2.1	18.6	1.0*	5.6	11.5	16.0
	부산	6.2	1.3*	14.9	1.1*	5.4	9.7	17.6
	대구	8.1	0.9*	15.6	0.6*	5.0	9.0	15.6
	인천	6.2	1.7*	20.3	1.4*	4.5	9.7	14.5
	광주	7.1*	3.3*	24.3	1.1*	2.0*	5.9*	14.7
	대전	8.3	2.3*	13.1	1.6*	3.7*	6.8	21.8
	울산	6.9	0.2*	6.0	0.7*	6.0	8.5	22.4
	세종	5.6*	0.0	16.3	0.0	3.6*	5.9	14.6
	경기	7.6	2.0	15.7	1.7	2.9	9.6	16.6
	강원	7.5	1.1*	21.5	0.8*	4.8	5.4	12.7
	충북	10.2	2.9*	23.0	2.4*	3.8*	6.1	14.2
	충남	4.9*	1.1*	11.2	2.2*	2.6*	7.0	21.1
	전북	11.9	0.0	17.3	1.1*	4.6*	6.3	20.6
	전남	5.3	1.8*	21.6	0.7*	6.1*	8.5	11.0
	경북	7.0	1.0*	21.0	1.2*	5.2	7.3	16.2
	경남	6.2	1.2*	16.4	1.8*	6.2	9.2	16.1
	제주	7.9	2.0*	17.6	0.9*	2.9*	6.2*	16.6

구분		직장이나 직무에 미래가 없어서	창업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폐업이나 사업(일) 종료로 인해서	해고	계약 기간이 만료 되어서	건강 상의 이유로	육아 및 가사를 도맡아야 해서	기타
전체		7.4	4.4	4.3	1.3	10.7	3.9	7.9	2.4
성별	남성	9	5.2	4	1.3	103	3.1	0.6*	3.4
	여성	6	3.7	4.5	12	11.1	4.7	14.6	1.5
연령	19~24세	4.1	1.9	3.6	1.3	13.5	3.7	1.0*	5.6
	25~29세	8	3.8	4.5	1.6	11.8	3.7	4.3	2.3
	30~34세	8.2	5.8	4.4	1	8.8	4.2	13.5	1.4
지역 1	수도권	7.7	4.2	4.6	1.3	9.7	4.3	7.3	2.1
	비수도권	7.1	4.6	3.9	1.2	11.9	3.5	8.6	2.8
지역 2	서울	7	3.6	4	1.3*	9.1	4.2	6.3	2.1
	부산	8.7	5.4	4.5	1.0*	12.4	2.8*	6.7	2.5*
	대구	6.2	5.1	3.9	2.4*	115	2.3*	9.7	4.0*
	인천	8.8	3.6	4.3	1.5*	10.1	5.4	4.9	3
	광주	8.9	2.6*	4	0.3*	9.7	3.6*	11	1.4*
	대전	6.7	2.5*	6.1	0.8*	15.1	2.4*	7	1.8*
	울산	6	4.0*	4.6*	1.9*	14.3	4.2*	11.8	2.4*
	세종	8.2*	2.5*	2.8*	0.8*	20.6	3.9*	11.4	3.9*
	경기	7.9	4.9	5.1	13*	10.1	3.9	8.8	1.7
	강원	7.6	4.4*	3.7*	0.4*	13.2	4.3*	11.3	1.4*
	충북	3.7	2.5*	5.5	0	12.3	2.9*	8.4	2.0*
	충남	7.9	9.9	2.5*	0	8.9	3.9*	13.2	3.5*
	전북	7.3	4.5*	2.4*	2.3*	9.5	3.5*	6.9	1.7*
	전남	6	7	3.0*	2.9*	7.1	5.2	9.6	4.3*
	경북	7.8	4.6	2.4*	0.3*	12.6	2.8*	6.8	4.1*
	경남	6.8	3.5*	3.8	2.0*	12.7	5	6.5	2.7*
	제주	7.7	4.9*	4.0*	0.3*	8.6	6.1*	9.4	4.7*

* 출처: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p 234~235.

- * 청년들의 일자리 관련 정책 수요를 반영함에 있어 청년의 다양성과 차이점이 간과되는 측면이 없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 청년 세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만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질 경우 이는 지역사회의 저출생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큼. 직업훈련, 취업 기회, 고용 조건, 노동 환경 등 일자리 관련 차별뿐만 아니라 성별, 생애주기 특성에 기반한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 일찍이 OECD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복지국가 연구자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은 이러한 경향을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 과정’으로 설명하였음. 여성의 고용이 점차 보편화 될 때 사회가 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출산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후 성평등이 진전되고 남녀가 동등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출산율은 다시 회복되며 새로운 균형점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임.
- * 청년 세대는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이며 출산·가구 형성의 중심 세대로서 일자리와 일·생활 균형 정책 효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임. 따라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일할 수 있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주 강화 요건이 될 수 있음. 이는 곧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생존 전략일 수 있음.